

주는 교회

성경말씀: 고후9:1-15

바른 교회의 모습: 말하는 교회, 연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실천이 나와야 한다.

오늘은 다루기 힘든 주제를 다루려 한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풍성하게 헌금해서 교회가 잘 유지되었다.

목사의 책무: 아이들과 새로 오는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야 한다.

헌금: 과도한 십일조 및 성전 건축 부과 설교, 헌금의 원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주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는 것, 앞부분 십일조 정리 성경공부, 뒷부분 헌금 원리 설교

십일조의 배경

우리 교회: 십일조를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 십일조 폐기론자로 지목받는다.

짐승 제사, 혼방은 입어서는 안 된다(신22:11), 의복에 술을 달아야 함(신22:12), 안식일 준수 등을 선포하면 이단이 된다(구약의 율법). 그러면 십일조는 어떤가? ★★★

대부분 말라기서 3장 8-10절을 인용한다. 말라기서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1:1을 보면 안다.

말라기서에서 많은 영적인 것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말라기서는 교회에게 주신 책이 아니다.

말3:9, 너희 곧 온 민족이 강도질을 한다. 3:11 너희 땅의 열매, 3:12, 기쁜 땅, 온통 이스라엘 8,9절 십일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면 저주로 저주를 받는다.

불신자에게 전도: 복음 선포,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됨.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림. 정죄가 없음 그런데 십일조를 안 냈다고 저주로 저주를 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은 사람은 저주로 저주를 받을 수 없다.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 해방 십일조로 복을 얻어야 할까? 이미 복을 받았는가?(10절)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의 있는 영적인 복을 다 받았다(엡1:3).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을 이미 받았다(벧후1:3-4): 성령님의 내주,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부활과 휴거, 평안과 기쁨 내가 세상 끝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는 자로서 헌금을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복을 받기 위해 헌금하지 않는다.

십일조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다.

십일조를 한다고 당장에 하나님이 곧바로 복을 주지도 않는다.

결론: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특히 포로생활 이후에 타락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 10절의 창고를 보자. 창고가 교회인가? 창고는 저장 장소이고 교회가 아니다. 창고는 은행이 아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신정정치, 12지파(13지파), 레위를 지원하기 위해 12지파가 십일조를 하였다.

레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파이다. 이것은 원리로 교회에 주어졌다. ★★★

십일조는 무엇인가?

교회들은 십일조를 수입의 십분의 일을 돈으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함

레27:30, 땅의 십일조는 곡식과 열매이다. 돈이 아니다. 돈으로 바꾸려면 그는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총 30%가 된다.

32-33, 짐승도 무조건 열째 것이 주님의 것이 된다. 바꾸면 안 된다.

이런 십일조는 레위 사람들의 것이 되었다(민18:21).

그러므로 이 십일조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주의 일을 하는 데만 사용되었다. ★★★

구약의 십일조: 1. 땅에서 나는 곡식과 열매, 가축의 십분의 일 2. 창고로 가져와야 한다. 3. 전부 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쓰여야 한다. 4. 레위 사람이 대신 예배를 드려 준다. 5. 레위 사람들은 거기서 다시 십분의 일을 떼어서 주님께 드렸다.

이런 십일조 외에도 신명기 14장에는 온 가족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즐겁게 먹는 데 쓸 십일조가 있다. 또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해 드리는 십일조가 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적어도 23.3%의 십일조를 해야 했고 이 외에 감사, 자원, 죄 헌물 등을 더 해야 했다. 말3:8 십일조와 헌물을 강도질하였다.

느10:38-39, 13:10-12 설명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수행되지 않는다.

이것이 구약의 십일조이다. 신약 교회에서는 이런 십일조를 강제로 부과하지 않는다. ★★★

신약시대의 원리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리를 보여 준다.

1. 헌금은 성도들을 섬기는 데 쓰는 것이다(1-2절).

바울은 이미 여러 곳을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고 말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분발하게 함.

십일조를 법에 따라 했으면 사랑할 것도 없고 분발할 필요도 없음,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다.

2. 돈을 탐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3-5절).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하나님께 성실하게 후하게 드리는 일이 필요함.

3. 헌금의 원리(6-7), 저마다 가지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강제적인 10%가 아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

1. 마음의 상태에 따라, 2. 아까운 마음이 들면 드리지 말라 3. 억지로 하지 말라.

5%, 10%, 15%, 20%든 원하는 대로 드리되 마음이 없으면 드리지 말라.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드리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한다. 저주와 정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즐거워서

4.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섬김의 직무이다(12). service, 이것이 곧 예배라는 뜻이다.

롬12:1의 합당한 섬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는 반드시 헌금이 포함된다.

이것의 목적: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12절).

5.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후하게 한다(11절), 너그러이 나누어 준다(13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그럽게 후하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성도들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11-15절을 눈여겨보자. 부요하다, 후하다, 많은 감사, 너그럽다, 넘치는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선순환의 구조로 되어 있다.

6. 기쁨으로 헌금할 때의 복의 약속(8-10)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다음에 나오는 약속을 보자.

9절 설명

10절 설명, 의식주의 문제에서 풍성하게 되고 의의열매도 자라게 된다.

결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헌금을 드려야 한다. ★★★

저주를 피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으므로 드린다.

헌금은 마음의 문제이다. 믿음의 문제이다.

헌금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된다.

이번에 성경을 펴는 데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여러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수고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 결과 400주년 기념관이 나오게 되었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로 원리를 보여 준다. 구약 율법 시대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저주를 피하려고 죽음을 벗어나려고 십일조를 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다. 지고의 복을 누린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수입의 십분의 일 정도는 주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리와 예의가 아니겠는가?

바른 성경, 바른 구원, 바른 교회, 바른 교리, 바른 실행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

예수님의 말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마6:21).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행20:35).